

임택 동구청장, 中企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관내 돈가스제조 회사 '히노아스카' 공장 방문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관내 돈가스제조 회사인 '히노아스카(대표 흥승표)'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임 청장은 흥승표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지역기업으로서 판로 확보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

을 갖고 이후 생산시설을 함께 둘러봤다.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중소업체인 히노스카(주)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HACCP(중점관리 우수식품) 지정을 받고 '진심 돈까스', '돈페', '아마이살몬', '더프리', '사돈의 팔촌집' 등 브랜드를 론칭해 온라인 판매, 유통업체납품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시간을 자주 가질 것"이라며 "구청 차원의 판로 개척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관내 돈가스제조 회사인 '히노아스카(주)'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 제공

북구, 돌봄 이웃 밀반찬 지원

독거노인·장애인·1인가구 등 위기가정 500세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다음달 19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위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행복 더하기! 영양 둘째 밀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이 기탁한 후원금 4000만 원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동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

회복지관에서 추천 받은 각 가정에 4회에 걸쳐 밀반찬을 지원한다.

특히 밀반찬 전달 시 건강상태 확인 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1967명에게 밀반찬을 지원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 7925세대에게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이웃에 대한 돌봄 활동을 지속해왔다.

/윤규진 기자

행복주택 선물, '발달장애 엄마·아들·딸' 희망 쌓기

엄마와 아들, 딸 모두가 발달장애인인 한부모 가정 식구들이 50년이 경과한 노후 흙집에서의 힘겨웠던 삶을 정리하고, 전국 각지의 후원자 4,000여명이 준비한 행복주택에서 새 희망 쌓기에 나선다.

18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대촌동 외딴 곳의 낡은 흙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A씨와 B씨, C씨 가족은 최근 새 보금자리로 조립식 주택을 선물 받았다.

이들 가족이 머물던 집은 흙으로 지어진 노후 주택인데다, 지난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심각한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주거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 연을 접한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은 10여년 전부터 A씨 가족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진척은 없었고, 지난해 6월 재차 설득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구청과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엠마우스 복지관은 협업을 통해 이

들 가족의 이주대책을 마련했고,

낡은 흙집이 있던 자리에 조립식



남구청·장애인복지관 등 협업, 보금자리 제공

주택을 새롭게 지어 이들 가족에게 제공했다. 조립식 주택을 짓기까지 구청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철거 등 행정 및 사례관리 지원에

나섰고,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서는 발달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한 임시 거주지 및 임대료 지원,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해 전국 각지

에서 도움을 준 4,000여명의 후원자로부터 성금 995만원을 모으는 결실을 맺었다.

또 엠마우스 복지관에서는 A씨

가족의 금전 관리를 도맡아 지원했으며, 아들 B씨는 복지관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해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다.

/윤규진 기자

북구,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시됐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재정이 비슷한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최우수·우수 기관 각각 1곳씩을 선정했다.

북구는 자치구 그룹에 편성돼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과 4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김정관 기자

'백년가게' 온라인 시민 추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백년가게' 시민 추천을 받는다.

백년가게는 20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해서 100년 이상 존속·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산구 백년가게는 현재 6개소이다.

시민이 추천할 수 있는 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20년 이상 광산구 소상공인업체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 품(<http://naver.me/GSiGjk4F>)에 접속해서 추천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민이 추천한 가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알려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통신비 감면 시범사업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18일부터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전화비를 아껴주는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김삼호 광산구 청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등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밀기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먼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국민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혜택 사각지대 주민에게 연락해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비 감면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동시에 통신비와 함께 4대 기본요금인 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도 받기로 했다.

/주형탁 기자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바람, 블루투어를 실현합니다.

블루투어는 저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은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관광생태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남해안은 해양지향적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의 발판이며, 영호남 지역화합을 이를 공간으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